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Points of the Tourism Resources on the Historical Sites
-In case of Kyungju and Kyoto-

전명숙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Myung-Sook Chun(msjeon@konyang.ac.kr)

요약

경주와 교토는 역사적인 고도(古都)로서 문화유산 관광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에게 문화유적지로서의 관광매력을 제공한다.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는 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역사성 주변 환경의 진정성 및 종교성과 예술성으로 구성된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인프라의 구축, 관광마케팅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자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주와 교토는 8C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과 불교관련 예술품들이 관광자원으로 작용하며 두 도시가 가진 독특한 이미지와 경관, 분위기가 어울려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의 보존정책과 관광자원 유적지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숙박공간과 전통음식, 쇼핑자원의 개발이 어울려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중심어: | 유적지 관광 | 문화유산 | 문화관광 | 관광자원 개발 | 관광자원화 특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what are the characteristic points of the tourism resources in the historical sites and what kind of factors can roll as the tourism resources in two old cities, Kyungju and Kyoto, Those two old cities are the oldest cities in the world and they have several world cultural heritages that registered by UNESCO. In Old historic cultural sites has its own tourism resources factors and characters such as Uniqueness, Authenticity, Historical character, Regional character, Art factor, Religious factor,

■ key word: | Heritage Tourism | Cultural Heritage | Cultural Tourism |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의 경주지역과 일본의 도교지역은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유적지 관광은 문화유산 관광자원이 보유한 매력과 가치를 발굴하

고 잠재고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원의 가치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역사적·문화적·관광시스템적인 체계적 조명을 필요로 한다. 관광의 본질이 타 지역의 문화를 보고, 체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며 현대사

회의 관광 행태가 이민족의 문화유산이나 민속 문화를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문화관광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은 높은 교육수준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한 형태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관광 고유의 가치, 특히 관광의 문화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역사 유적지는 원형의 모습을 통하여 후세인에게 정신적인 가치와 역사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메시지의 전달역할을 할 때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역과 도쿄지역의 관광자원의 속성을 분석해보고 이들 고도의 역사유적지에서 나타난 관광자원화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유산 관광의 의의

경주와 교토의 관광자원의 공통점은 문화유적이거나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유산 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이나 기타 부속물로서 전통적인 구조물 군이나 도시 또는 농촌 취락지역의 역사 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하는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을 포함하며 지상과 지하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과 이들 주변 환경도 포함한다. 또한 문화유산은 부동산에 소재하거나 부동산에서 발견된 문화유산과 지하에 매장된 문화유산으로서 고고학적, 역사적 유적지나 기타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동산과 고고학적, 건축학적 역사유물 및 구조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류되지 않은 과거의 증적(證迹)이나 예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다[1].

문화유산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자료를 총칭하며 특정 문화 집단의 삶에 대한 지혜가 함축된 공동유산으로서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전통적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식, 민속, 예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문화유산 관광은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물질문명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점차 대중 속에 고립화되는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과 정신적 가치와 진리의 추구를 위한 현대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장세분화의 지표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문화집단의 문화적 역량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인 동시에 그들의 문화자본이기도 하며 이들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진리 추구 활동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공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2].

표 1. 문화유산 관광자원 상품의 유형[3]

유형	특징	사례
문화유적관광	유·무형의 문화적 유적을 관광하면서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적 자긍심 회복	왕릉, 궁궐, 매장문화재, 민속자료
민속예술관광	타민족과 다른 민족예술적 성격 특화	하회별신굿, 무당춤, 중요제례악, 전통축제
역사교육관광	특정분야에 대한 배움의 욕구 충족	유교, 불교문화연구, 중수지리연구
전통생활체험관광	타민족과 다른 전통적 삶을 재현	전통민속마을관광
종교 성지순례	종교발생지, 순교지 및 종교적 의의가 깊은 곳 순례	종교발생지, 교박해현장, 순교지

2. 문화유산 관광자원 요소

1) 관광자원성

관광자원은 관광자원의 목적, 관광자원의 대상범위,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시대와 국가, 개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 자원과 달리 관광자를 관광지를 끌어당기는 힘인 매력성을 필요로 한다. 관광매력이란 관광지의 자연미, 경관미, 신기함, 특이함의 속성을 의미하며 개발을 통하여 현재보다 양호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할 수 있고 관광자원의 가치를 갖기 위하여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관광자원은 관광의 욕구와 관광의 질을 위하여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관광자의 가치변화에 따라 범위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문화유산 관광지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관광자들

은 역사를 통한 비교문화와 인류학, 고고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관광을 통하여 습득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원하는 볼거리를 주제와 의미를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다면 관광의 만족 효과는 한층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광자원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흥미유발요소를 발굴하고 관광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광지와의 비교문화와 주 관심사를 분석하여 그들의 관광효과에 대한 만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2) 진정성(Authenticity)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변 환경으로서 경관 미와 주변의 환경, 지형의 특색, 기후, 해변과 바다, 온천, 산림, 동식물군을 의미하며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불가분의 관계요소이다.

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은 모두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체의 균형과 특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건물군과 공간 조직, 주변환경과 같이 다양한 인간의 환경을 포함하는 부분들의 조합이다.

3) 역사성

문화유산은 인류의 유구한 문화정신과 지혜의 역사적 업적물로서 주변 환경이 포함하고 있는 내면적 역사적 배경과 도로, 사적지의 원형보존을 통하여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의 분위기와 박물관이나 체험 장을 통한 유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의 특성을 의미한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것을 기록한 일의 두 가지를 의미하며 이 두 가지 의미는 개념상으로는 구별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기록된 역사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통일된 개념으로 역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4) 종교성

종교는 인간정신의 내면적 세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의 형상으로 인

간의 사회활동과 직접적 관계를 갖게 된다. 종교의 인간에 대한 사회적 기능은 경전과 교리, 사상, 철학과 같은 정신적 사고를 통한 사상적 기능과 의식행위를 통한 실천적 기능, 같은 종류의 신앙을 따르는 구성원들의 조직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종교와 관광과의 관계는 인간의 신앙심이 관광동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성지순례나 교리전과, 종교의 이념인 세계평화실현과 같은 종교 관광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5) 예술성

예술은 예술가의 정서와 사상을 심미적 태도와 감정으로 사회에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상으로서 사회성을 반영하며 예술의 내재적, 자율적 법칙들과 사회, 역사적 계기들이 서로의 경계선을 지키며 동시에 복잡적이며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예술성은 역사적 장소와 독특한 문화적 관습, 전통, 예술품 및 수공예품 등 인간생활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문화유산의 고유성(Authenticity), 정체성(Identity), 문화의 진정성(Truth),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를 관광자에게 인식시키는 역할과 여행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는 관광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6) 지역성

관광목적지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시설, 관광서비스의 특성으로서 지역특유의 민속문화나 의식, 전통놀이, 전통 음악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관광자원과 지역문화가 접목된 관광상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의 전통과 문화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류의 생활풍속에 대한 개념으로서 전통은 가변성, 지속성, 고유성, 현재성속성을 가지며 특정지역의 역사성이 있거나 특정지역 주민에게 장소성이 있는 일반을 의미하고 문화는 한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징지우는 현저한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지적인 것의 총체적인 복합물로서 예술과 문학과 포함하며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을 포함하며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무형의 현상일체를 의미한다.

표 2. 문화유산 관광자원 특성

요 인	속 성
관광자원성	관광자원의 종류 및 특성 유적지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변환경의 진정성	고대유적지 주변환경의 진정성 고대유적지 주변환경의 자연미 자연자원에 대한 철학적 배경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관광자원과의 조화
역사성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의 분위기 박물관을 통한 유물의 전시 역사적 전통의식
종교성	유적지의 종교적 특성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사
예술성	유적지의 고유성 유적지의 정체성. 문화의 진정성 문화유산의 예술적 가치
지역성	관광지의 문화적 특징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용도

자료: 논자작성

3.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는 문화유적지가 소재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뜻한다. 관광자원개발이란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태계 내의 유형, 무형(visible & invisible)의 여러 자원으로서 보존,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가 상실하거나 소멸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을 ‘주어진 현상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현상을 창조해가는 과정’(이장춘, 1997:pp.254-255)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성과 관광개발과정의 민주성, 목표달성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효율성, 사회에 가치와 기회를 균등히 배분하는 형평성, 지역특화관광자원개발을 의미하는 지역성,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함을 우선순위를 두는 문화성을 이념으로 삼는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의 목적은 한 나라의 관광공간을 재편성하고 관광지 내의 자원을 국민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학술자료와 정보로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며 국민의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국의 관광자원을 외국에 홍보하고 지역사회 의 고용창출과 건전한 관광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란 관광지의 문화와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적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보전하며 이를 지속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함을 의미하며 관광자원과 관광지의 이미지, 관광지의 연출력과 관광마케팅의 개념도입이 필요하다.

III. 경주와 교토의 관광자원요소 분석

1. 경주지역 문화유적의 관광자원 요소 분석

1) 관광자원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은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 유적지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불국사는 AD 751에 김대성에 의해 건립된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불교 사찰로서 사찰의 구조면에서 경내를 동서로 나누고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지하문을 통하여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구조로 건립되었으며 서쪽 구역은 연화. 칠보교를 건너 안양문을 통과한 후 극락전으로 통하는 불국토(佛國土)의 이상이 구현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석굴암은 불국사와 동시에 김대성에 의하여 설립된 인조 석굴로서 원형의 주실과 방형의 전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실 벽면에는 8부 신상이 양각되어 있고 주실의 입구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주실중앙의 석가여래와 주실 벽에는 보살과 나한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천년(B.C 57 - A.D 935)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불교유적, 왕경(王京)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유적의 밀집도와 다양성이 특징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의 5개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4].

표 3. 경주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유형[10]

관광자원 유형	종 류
사찰	불국사, 갑은사터, 분황사, 황룡사터, 백률사, 고선사터, 골굴암 등
불상	석굴암 본존불, 골굴암마애여래좌상, 남산 미륵굴 석불좌상, 남산불 굴석불좌상, 동천동 마애삼존불, 배리삼존불, 불국사비로자나불 등
탑	갑은사지 석탑,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분황사석탑, 고선사지석탑 등
능묘	봉황대, 신라현덕왕릉, 경주간묘, 황남동고분군, 황오동고분군, 금관총, 금령총, 대능원 등
사적지유적지	금장리 와요지, 성동중전터, 임해전지 등
항교	경주향교
민속마을	양동마을
성문	경주월성, 경주읍성, 북형산성, 서형산성
고택생가	경주 최씨 가옥, 경주탑동 김현옹고기옥
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 경주 동국대 박물관
기타 문화재	경주삼당사지 당간지주 석빙고, 석장동 안각화, 금제과대 및 요대, 기마인물형토기,기와집모양의 곱함 등

2) 진정성(眞正性)

경주는 중적평야위에 이루어진 신라의 수도였으며 지질학적으로 중생대의 쥐라기와 백악기, 신생대 제 3기에 형성된 서암력암층으로 덮여 있는 퇴적층위에 형성된 도시이다. 경주평야의 주변으로는 동쪽 토함산, 남쪽 금오산, 서쪽 옥녀봉과 선도산이 있고 그 사이 보문천, 인천, 남천, 건천 등이 합류하여 북쪽 형산강으로 흐른다. 경주지방의 기온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52.8도에 달하며 산지에 쌓여있어 해풍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해안보다 여름기온이 높고 겨울이 따뜻하며 연평균 기온이 12-13도C이며 서북풍·서남풍이 대부분이고 동남풍은 거의 없다[5].

도시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토함산지구,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대본지구, 단석산지구 등 7개 지구 138.16km²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204개 지구 34.56km², 도시계획법상 보전 녹지지역이 21개 지구 12.25km², 농업진흥지역이 131km²이다[6].

3) 역사성

경주시 주변의 산과 계곡은 석기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주거지로 일찍부터 육촌이 있었다. BC57년 육촌이 연합하여 박혁거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국호를 서라벌, 사로 또는 사라로 하였다. 수도를 금성으로 칭하기도 했으나 국명과 수도명을 동일시하였다. 김씨 시조가 계림에서 탄생한 후 국호를 계림으로 칭하기도 했으나 그 후 별칭으로 사용하였으며 제15대 기림왕 10년(AD307) 국호를 신라로 칭하기도 하였다. 제22대 지증왕4년(AD503)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신라의 번성기에는 경주에 178,936호가 1,360방에 나누어 살고 있었으며 35개의 호화주택지가 있었다. 경주는 935년 신라가 고려에 패망할 때까지 수도였으며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으나 AD751년에는 한국불교문화의 최고 번성기를 맞이하였다.

표 4. 경주의 시대별 특징[10]

시 대	특 정
상 고 시 대	진한 12국중 사로국이라 칭함.
삼 국 시 대	BC 57년 신라건국후 56왕 992년간 왕조를 이어옴. 서라벌 또는 계림이라 불림
통일신라시대	민족 문화의 분류를 형성.
고 려 시 대	고려태조 23년(940년) 경주로 칭함. 987년 동경으로 개칭. 1012년 경주로 개칭. 1308년 계림부로 개칭.
조 선 시 대	1413년 경주부로 개칭. 1895년 경주군으로 개칭.
대한민국	1955. 9. 1 경주읍이 시로 승격, 군명칭을 월성군으로 개칭

4) 종교성

이차돈의 순교이후 신라시대를 지배한 종교는 불교였으며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북방불교의 정법사상으로 왕과 서민이 정신적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하였지만 그 이전의 원시종교와 고유 신앙의 갈등으로 6세기 초에 들어서야 신라 제 23대 법흥왕 때 백성들이 불교를 믿어 복을 바라는 일을 허락하게 되었으며 사찰건립을 통한 호국사상의 유도와 현실적인 구복기원을 추구하고 의상과 원효와 같은 승려들의 당나라와의 교류로 인한 유학생과 구법승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불교사상이 단순한 호국종교성을 벗어나 사회적 종교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중심으로 전파되었으며 화엄철학과 사상적 경전연구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아미타 신앙이 민중들 간에 성행되었으며 화엄종과 범상종, 원효의 화정사상, 정토신앙, 선종으로 세분화되었고 관음신앙과 약사신앙, 밀교가 동시에 성행하였다.

5) 예술성

신라예술의 특징은 통일신라의 사회적 안정과 번창에 힘입은 예술의 발달로 백제와 고구려, 당의 이질적 예술 감각을 받아들여 민족예술로 승화시킨 불교예술의 종교적 취향과 서역세계의 조화미를 들 수 있다. 신라 불교예술중에서 사찰을 대표하는 불국사는 가람의 배치가 단탑식이 아닌 쌍탑식이며 단계별 종교의식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석굴암은 신라를 대표하는 대표적 건축

물로서 한국 예술미와 신라인의 지혜를 대표한다.

신라의 탑과는 3층석탑이 주를 이루며 넓은 두 개의 탱주와 기단부위의 안정된 3층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고 신라의 불교미술은 선종의 발달에 따라 미술의 지방화가 촉진되었으며 비로자나불이 주로 조성되었다. 또한 분묘는 초기에 수혈식 적석총으로 금관과 같은 부장품을 보존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산지에 횡혈식 석실묘를 축조하고 봉토를 호석으로 두르고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그 밖에 신라예술은 범종과 사리구, 토기와 토우제작 등을 들 수 있다.

6) 지역성

경주는 BC37년에 금성을 신축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AD101년에 월성을 축성하고 고대 중국의 방리제를 도입하고 방리명을 정하고, 시가지를 정비하면서부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역사도시 경주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적인 관광도시로의 탈바꿈과 주변도시의 공업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현대 도시화를 촉진시켰고, 이 도시화는 당연히 역사경관의 보존과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다. 1969년에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971년에 확정 경주관광개발종합계획은 1972년 공사를 착수하여 198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에 추진된 보문관광지구 개발, 사적지구 정비 및 관광 기반 시설 사업은 시외까지 개발에만 치중하고 도심부는 각종 규제

로 장기간 제한하여 기형적이 도시 성장이 이루어 졌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추진된 제2기 경주관광개발 사업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정부의 행정 지원과 의욕적인 민간 투자가 적어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도시 정비 사업을 지방 정부 주도하에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는 괄목한 성과가 있었다 [7].

2. 교토지역 문화유적의 관광자원 요소 분석

1) 관광자원성

교토는 794년 일본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약 1,000년 동안 일본의 중심지로 발전해왔으며 헤이안시대로부터

전해져오는 문화유산과 사찰, 신사, 일본의 전통 정원과 방직, 도예, 수공품, 염색, 공예품등 관광자원이 있다. 일본의 국보 1호인 교류지(廣隆寺)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백제, 신라시대의 미륵반가사유상과 흡사하여 중국의 양자강유역의 조각형식이 백제를 통하여 일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며[8], 원래 아시카가쇼군의 산장으로 지어졌고 건물 전체 금박을 입힌 2층 누각이 있는 긴가구치(金閣寺), 778년 승려 엔친이 지은 절로 순수한 물을 의미하는 기요미즈테라(清水寺), 세키가와라 전투를 통해 천하를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게이초 8년(1603) 쇼군(將軍) 칭호를 받을 때까지 머물던 해자와 돌담으로 둘러 쌓인 성곽 니조쥬(二條城) 등의 문화유산과 교토의 축제가 교토의 관광자원을 대표한다.

표 5. 교토의 세계문화유산 목록

구분	세계문화유산
불교사찰 (Temple)	교오고쿠구자(태지), 기요미즈쥬, 헤이잔은라쿠지, 다이고지, 닌나지, 보도인, 우지가미, 고잔지, 사이호지(고케데라/모스), 텐류지, 로쿠온지(킨가쿠지), 지소지(긴가쿠지), 료인지
신사 (Shrine)	가모와케 이까주자(가미가모), 가오미야, 우지가미
성(Castle)	니조성

자료: www.pref.kyoto.jp 참조하여 논자작성

표 6. 교토의 관광자원 분석

관광자원	관광자원의 내용 및 특성
교류지(廣隆寺)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백제, 신라시대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흡사한 외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긴가구치(金閣寺)	3층구조의 누각으로 1층은 헤이안시대 귀족주의의 건축 양식, 2층은 무사들의 취향반영, 3층은 선실(禪室)처럼 빈공간적 특성을 보임.
기요미즈테라 (清水寺)	순수한 물을 의미하는 불교사찰로 절벽에 10여m 돌출된 마루가 139개의 나무기둥으로 바쳐 지어짐
니조쥬(二條城)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게이초 8년(1603) 쇼군(將軍) 칭호를 받을 때까지 머물던 해자와 돌담으로 둘러싸인 성곽.
류안 사(龍安寺)	세계적인 교산수 정원으로 정원에 백색모래와 작은 돌이 있다.
교토의 축제	교토의 3대 축제이며 일본 전체의 축제의 기원 마쓰리(祇園祭), 옛날 황실의 심사참배를 재현하는 아오이 마쓰리, 교토가 수도로 정해진 지 1,100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축제인 지다이마쓰리(時代祭)가 있음.

자료: 논자작성

2) 진정성

교토는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일본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4,612,36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는 4계절의 평균기온이 4월이 섭씨 13.7도, 7월이 섭씨 26.3도, 10월이 섭씨 17.0도, 정월이 3.9도이다. 주변 자연과의 조화되는 교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교토분지는 수도의 성과 인공도시의 배경, 환경의 역할을 하였고 일본적 도성제(都城制)에 기반을 둔 완벽도시 건설의 구상에 따라 헤이안쿄가 건설되었다. 엔초(延長) 5년(927)에 완성된 법전에 수도의 규모, 마을의 규모와 구성, 성벽 건축방법 등 도시계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헤이안쿄가 계획도시였지만 미완성의 도시였으며 도시의 이상형임이 밝혀졌다[9].

‘킨키 지방’의 중앙부에서 북부에 걸쳐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교토 부는, 북서단에 위치한 ‘마이즈루 만’ 등 리아스식 해안부와 부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단바 산지’, 남동부에 있는 ‘교토 분지’의 3종류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역사성

교토는 794년 간무 천왕이 나라에서 도읍을 옮긴 후 1868년까지 일본의 천년 수도이었으며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다. 교토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가 시작되면서 수도로 되었으며 1868년 에도시대(江戸時代)가 끝나고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이 수도를 도쿄로 정할 때까지 천황과 황실이 있던 곳이며 예술과 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17개 문화유산을 비롯, 일본 중요 문화재의 20%가 몰려있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표 7. 교토의 역사적 배경[11][12]

연대	연대명칭	역사적 중요 사건
794-806	엔라쿠	헤이안쿄 천도
806-901	다이도, 고닌, 덴쇼, 조와, 가쇼, 닌쥬, 사이코, 덴안, 쇼간, 간교, 닌나, 간표 쇼타이,	고닌. 쇼간문화 성숙기. 발해와의 무역 활발 신라에 파견하는 건 신라사 중지함 사이쇼가 당에서 귀국하여 천태종 개종함 국풍문화 번성. 가나문자 형태 정해짐. 우다 천황 '간표노 고유키'를 저술하여 새 천황인 다이고 천황에게 헤이제이 상황, 헤이조코로 옮김

901-1004	엔기, 엔초, 조헤이, 덴코, 덴라쿠, 덴토쿠, 오와, 고히, 안나, 덴로쿠, 덴엔, 쇼겐, 덴겐, 에이칸, 간나, 에이엔, 에이소, 쇼라쿠, 쇼토쿠, 쇼호,	대토지 소유제한의 장원 정리령 공포됨. 후지와라노 도키하라 등 엔기력 12권 완성. 미나모토노 시타고, 최초의 백과사전인 '왜명류취초' 편찬. 간원대보 주조함. 다이랴노 마사카도의 난. 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난. 기타노 덴만궁 창건. 엔기식 완성후 40년만에 시행됨. 교토 기온사의 제례인 기온교료에 최초 개최. 엔유 천황의 황후 후지와라노 센시, 출가후 히가시산조인이라는 최초 여원호 받음.
1004-1104	간코, 조와, 간닌, 지안, 만쥬, 쇼겐, 조라쿠, 조쿠, 키타쿠, 에이소, 덴키, 고헤이, 지라쿠, 엔큐, 쇼호, 조라쿠, 에이호, 율쿠, 간지, 가호, 에이초, 쇼토쿠, 고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호쇼사 금당을 공양함. 삼관정치로 전성기 맞이함. 관백 후지와라노 요리미치, 우지의 별장을 절로 만들어 보도원이라 칭함. 말법사상의 유행. 미나모토노 요리요시, 미나모토의 거점으로 가마쿠라에 하치만궁 건립. 엔라쿠사, 온조사 승병의 항쟁. 후지와라노 기요히라 오우의 패권 확립
1104-1190	쇼지, 가쥬, 덴닌, 덴에이, 에이큐, 겐에이, 호안, 덴지, 다이, 덴소, 조쇼, 호엔, 에이지, 고지, 덴요, 규안, 닌표, 규쥬, 호겐, 헤이지, 에이라쿠, 오힌, 쇼칸, 에이만, 닌안, 가오, 쇼안, 안겐, 지쇼, 요와, 쥬에이, 겐라쿠, 분지	도바 천황 양위하여 스토쿠 천황 즉위. 삼정 후지와라 다다미치, 태정대신이 됨.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를 후계자로 정함. 다이랴노 마사노리 미나모토노 요시치카 토벌. 호겐의 난, 고시라카와 천황, 니조 천황에게 양위함. 헤이지의 난. 헤이케 남경 다이랴노 기요모리 무가출신 최초 태정대신이 됨. 다이랴씨 정권. 다카쿠라 천황 즉위. 시사카타리 사건. 호넨사상(정토종) 제창. 겐페이 전쟁의 시작. 소송. 재판담당 기관인 문주소. 공문소 설치

자료: 논자 재작성

4) 종교성

일본은 6세기에 불교를 백제로부터 받아들여 외래문화를 발전시켰고 남북조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교토는 시종(時宗)과 일련종(日蓮宗)·선종(禪宗)등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여 기존 불교계의 사원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작용을 하였으며 관음신앙이 유행하였다[9]. 특히 794년 헤이안쿄의 교토 천도는 정원의 조경에 불교의 정토사상에 따른 수미산 사상과 신선사상의 영향속에서 현세에 정토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의미를 내포하며 현세의 고뇌를 초월한 청정사상(淸淨常樂)의 경지를 열고 깨달음을 얻어 불타와 보살이 사는 극락왕생의 아미타 신앙이 크게 흥하였다. 헤이안쿄에 천도한 이후 9세기 말 고닌(810-824), 쇼간(859-877)시대에는 새롭게 전래된

천태종. 진언종의 영향을 받아 밀교적 요소가 특히 강력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11]. 카마쿠라시대(12~14세기)에는 선사상(禪思想)이 도래하고 무사계급이 정치하는 남성문화가 나타난 시기이며 불교계에서도 구불교(舊佛敎)에 대하여 정토종, 선종, 법화종 등의 신흥종파가 소개되었다.

5) 예술성

일본이 외래문화를 자기화 한 것은 6세기에 불교문화가 도입되면서부터이며 인도를 출발하여 중국을 거쳐 한반도를 통하여 전래된 불교는 불상제작과 사찰건립, 건축, 공예, 회화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건축에서는 목조건축이 유행하였고 조각의 황금기를 맞아 다양한 모양의 불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선종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아 사원이 교토의 중심지와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건축되는 경향이 일어났고 자연과 인공, 종교, 역사, 문화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인 미를 연출하는 '경치'와 '심경'이라는 새로운 환경개념이 보급되어 사원건축에 적용되었고 기존의 불교계는 현세의 이익을 내세우는 등의 서민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나갔다[9]. 무로마치시대(15~16세기)에는 남북조 시대에 조성한 선정(禪庭)을 필두로 선사상(禪思想)에 의한 축경식 정원이 발달하여 일본적 고산수(枯山水)정원이 조성되었다[13]. 당시의 주요 예술작품으로는 건축부문에서 무로사의 금당과 5층탑을 들 수 있으며 조각부문인 겐고사의 목조 약사여래상, 진고사의 목조 금당 약사여래상, 간신사의 목조 여의륜관음상, 무로사의 미륵당 석가여래상, 야쿠시사의 승형 하치만 신상을 들 수 있으며 회화부문에서는 진고사의 양계 만다라와 온조사의 부동명왕상, 서예부문에서의 풍신첩을 들 수 있다[11]. 또한 10세기 이후 12세기 무렵까지 당의 문화를 일본 고래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 특유의 국풍(國風)문화를 발달시켜 전대의 문화에 비하여 역동감은 없지만 우아하고 부드럽으며 미적 감각에 특징이 있는 문화를 창조하였다[11].

6) 지역성

교토는 일본전국의 문화유산중 20%가 위치하고 있는 고 도시로서 일본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조화로움이 지역적 특성을 대표한다. 이들의 구성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일본식 불교 사찰과 신사, 일본식 정원, 불상이 교토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형성하고 교토의 3대 지역축제가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어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일본전통의 염직물의 공방체험이 가능한 라쿠추(洛中)골목과 일본의 전통숙박시설인 료칸(旅館),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그릇에 담아내는 모양을 중시하는 교료리(京料理)가 교토관광상품의 특성을 대표한다.

IV. 경주와 교토의 문화 유적지 관광자원화 특성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는 자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고유문화를 관광객에게 전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은 인류의 공유물로서 문화유산이 단지 존재함에서 벗어나 본래의 의미와 내재된 사상과 전통을 후세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문화유산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영원히 빛낼 수 있다. 경주와 교토의 문화유적지에서 나타난 관광자원화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이다.

두 도시의 주 관광자원인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로서 자원의 보전과 가치 재창출을 통한 유적지 원형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철저한 규칙과 제도를 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국가차원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의 추구로서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보존, 보전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쾌적한 물리적 환경과 환경보호를 통한 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의 고유성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서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의 의미는 문화유산의 고유성에 바탕을 두며 문화유적지의 독특한 개성인 고유미와 자연미, 문화미, 예술미를 간직할 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전통시설과 서비스의 관광자원화로서 전통적인 관광시설물이나 복장, 의식의 재현으로 과거를 상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연출이다.

V. 결 론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이 되는 국제적 시류에 따라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며 다민족의 인류가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과 개성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관광에 대한 수요확대에 따른 관광상품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관광을 통하여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문화 중심 관광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는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주지역과 일본의 도교지역은 그중에서도 상호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역사와 전통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각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의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성과 진정성, 역사성, 종교성, 예술성, 지역성에 대하여 두 관광지를 분석을 해보고 두 도시가 가진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관광자원화의 특성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 문화의 고유성 보존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시설과 서비스의 조화의 내용을 연구의 결과로 요약되었다.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는 문화유산의 성격상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관광객의 다양한 참여와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이 중요한 내용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남아 향후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관광지 개발방안과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용정 외, *개발과 유산의 보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 [2] 이창언,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1998.
- [3] 이광원,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8.
- [4] <http://www.ktd.co.kr>
- [5]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이야기*, 통천문화사, p.10, 1991.
- [6] 서태양, *문화관광론*, 대왕사, pp.163-164, 1999.
- [7] 강태호, *경주 고속철도 경주역사 확정과 도시발전 과제*, 경주연구 제6집, p.55, 1997.
- [8] 마츠바라 사브로 편, *동양미술사*, 예경, p.530, 1994.
- [9] 중앙M&B, *세계의 문화유산*, 중앙일보사.
- [10] <http://www.kyongju.kyongbuk.kr>
- [11]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9.
- [12] 연민수, *일본역사*, 보고사, p.288, 1999.
- [1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관광산업에 한국적 문화개념의 새로운 적용을 위한 방안연구*, pp.38-39, 1997.

저 자 소 개

전 명 숙(Myung-Sook Chun)

정회원



- 1984년 2월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경기대학교(관광경영학 석사)
- 2001년 8월 : 경기대학교(관광학 박사)

· 2002년 3월~현재 :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관심분야> : 관광상품기획, 관광상품연출, 문화관광, 관광서비스